

# 메주고리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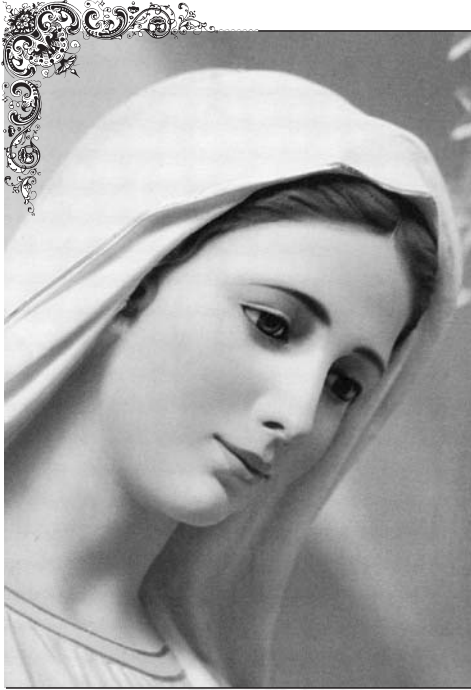


Medjugorje

November, 2007 제41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마음을 열고  
내 메시지를 받아들였지만,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 사랑의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둠과 죄가 있는 곳에  
사랑과 빛이 되라고 나는 너희를 부른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7년 10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영광송 3번)

오 나의 하느님,  
당신 앞에 있는 이 아픈 이를 돌아 보소서.  
저는 그가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청하러 왔나이다.  
오 나의 하느님,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소서.

## 아픈 이들의 치유를 위해 바치는 기도

(이 기도문은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병자들의 영육간의 치유를 위해  
내적담화자 열레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만물 안의 당신의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면, 그에게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당신의 뜻이 다른 것이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견디어 나아가게 하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자비를 전하는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또한 그가 용감히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그를 도와주소서.  
아멘.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선교회의 신부님들과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주님, 저의 가난한 기도를 들으시어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죄인들의 회개와 냉담중인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사랑하는 엄마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며느리 000가 혼수상태에서 헤어나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모니카의 영육간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 딸에게 사업체 구해 주시고 메주고리어로 불러주세요.
-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고 남편에게 힘과 지혜를 주소서.
- 무속신앙에 빠져 냉담중인 000를 어둠에서 구하여 주소서.
- 시어머님의 마음과 평화를 위하여 주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 죄 많은 제 삶을 봉헌하오니 성모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 성모님, 아들이 어두운 길 가지않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 사랑하는 동생과 두 딸들이 주님과 화해하도록 인도하여주소서.
-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소서.
- 예수님, 길 잃고 어둠에서 헤메는 조카를 구원하여 주소서.
- 어릴때 자폐증 진단을 받은 마르코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세요.
- 낙태된 영혼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보살펴주소서.
- 아버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저의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주소서.
- 주님, 온 세상이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 성모님, 엄마의 영육간의 건강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세요.
- 미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000의 영육간의 건강과 하루빨리 하느님이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지도신부님, 회원들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기도합니다.
- 첫손녀 00의 영혼의 안식과 고통중에 있는 모든 중환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불행하고 억울하게 죽은 모든 영혼을 위로하시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 성모님, 000가 마약과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아들을 치유해 주시어 마음 속 깊이 박혀있는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여 주소서.
- 결혼32주년을 함께 하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저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 성모님, 형제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상처들이 치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평화의 모후선교회 지도신부님, 모든 회원님들에게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제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주님과 성모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 성모님, 오랜 투병 생활중 돌아가신 아버님이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 복무 중인 아들과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성모님! 저의 아이들을 봉헌하오니 성소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 가족들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 성모님, 00 자매님이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10월 메주고리에 순례때와 요조신부님께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사제들이 성모님을 통하여 사제직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깨닫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께!



**질문 :** 신부님께서는 언제 처음 메주고리예에 오셨는지요?

**채 신부 :** 1990년 로마에서 있는 복음화 2000년의 사제 피정에 참석할 때 25명의 사제단과 함께 하루 메주고리예에 왔다가 발현 목격자인 비스카의 모습만 보고 떠났습니다. 1995년 미국에 사는 엘리사벳 자매님과 세 분의 신부님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때가 발현 14주년 기념이었는데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특별히 세 가지 은총을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해 10월 한국에서 순례단을 모집하고 시카고의 한명수 아오스딩 형제의 안내로 순례를 왔었습니다. 그 후 90년, 95년, 96년 그리고 이번 4번째 순례는 3년 전에 '성모님, 한번 더 메주고리예 가고 싶습니다. 불러주십시오.'라고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응답으로 왔습니다.

**질문 :** 성모신심을 갖게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채 신부 :** 금년이 제 사제 서품 20주년인데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사제 성소를 받고 87년에 사제로 서품 받았습니다. 그 후 성령 쇄신 운동에 깊이 참여하고 또한 아버지 신부님을 통해서 마리아 사제 운동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자연스럽게 성모님께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후 마리아 사제 운동과 메주고리예를 순례하면서 성모님께 대한 믿음이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질문 :** 일반 대학에서 신학교로 오신 특별한 체험이 있으셨는지요?

**채 신부 :** 저도 행복한 결혼을 꿈꾸던 평범한 남자였기에 사제 성소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 8월경 2박 3일 성령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소를 받아 사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이지요. 뒤도 안돌아 보고 뛰어 들었습니다. 그 후, 대구 대교구 성령 쇄신 기도회와 마리아 사제 운동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5번의 성체신심 세미나를 했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해서 신자들과 함께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주고리예 순례에서 성모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성체성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질문 :** 신부님은 사제 생활과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채 신부 :** 제가 처음 사제 서품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수한 마음으로 신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살다보니 열정이 식어져서 세속의 많은 유혹으로 갈등을 느낄 때, 성모님께서서는 특별히 사제들을 보살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소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인 사제들을 항상 돌봐주십니다.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서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사제들이 사제직에 대한 확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 하실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고 사제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사제직을 성모님께 봉헌하므로써 제 힘이 아니라 어머니의 보호 아래 오늘 날까지 사제의 길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통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본당이 더욱 더 쇄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성모님께서서 발현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

한 은총이 아닌가요? 그리고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아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은총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 메주고리에는 아주 특별한 은총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 순례에서 가장 크게 기억되시는 것 한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채 신부 :** 우선 내 자신의 회개입니다. 사제로서 위기상황이었을 때, 성모님을 통해서 사제직을 택했던 첫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체험을 바로 이곳 메주고리에서 했습니다. 또 제 자신의 그런 회개를 통해서 본당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저의 메주고리에의 체험입니다. 성모님의 발현때 나타나는 특별한 체험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그 반응이 너무나 폭발적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메주고리예를 한국에 알리도록 성모님께서 도구로 쓰셨다는 느낌을 이번 순례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이번 순례에서 요조 신부님과 발현증인들, 심지어는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강론에서도 한결같이 사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신부님은 한국 신자분들의 사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한국 사제들을 위한 바람이 있으신지요?

**채 신부 :** 저도 굉장히 흐뭇하고 기뻐합니다. 미리아나 선견자는 성모님을 보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은 바로 사제들이라는 것, 사제직의 위대함을 말씀하신 요조 신부님과 평일 미사의 강론 사제가 사제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죄이며 또 사제를 존경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프란치스코 성인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하셨지요. 또한 성모님께서 사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의 감동이 컸습니다. 특히, 정말 한국의 사제들이 특별히 성모 신심을 통하여 사제직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깨닫고 사제직을 좀더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성모 신심을 지향하는 마리아 사제 운동 모임이 있지만 7~8명 정도의 소수이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미사 때마다 사제들의 성화를 지향하며 성모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은 사제들이 성모님의 그 애틋한 사랑과 호소를 알아듣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성화된다면 그 성화된 삶을 보는 신자들도 성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교구가 쇠신되고 좋겠습니까? 신자들은 메주고리예를 통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정작 사목자들에게는 변화의 속

도가 늦어지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때가 되면 이곳 메주고리에의 발현 언덕에 특별한 표징을 세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장소에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모후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한국 신자들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성모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채 신부 :**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하는 사제로서 이미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천국의 작은 정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구 대교구의 한 가정이 봉헌했다는, 그 성모상을 직접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수 많은 나라의 청을 거절하고 한국인의 봉헌을 받아들인 것은 성모님의 특별한 안배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반도의 통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모님의 특별한 중재를 통해서 무기 없는 평화 통일이 되어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도이지만, 동시에 주교님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교구가 공식적으로 남북 통일을 바라는 지향으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그 선례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파티마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 1984년 3월 25일에 전세계 주교님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봉헌하신 후 89년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성모님께 통일을 기원하는 봉헌을 한다면, 성모님께선 틀림없이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질문 :** 채창락 신부님께서 메주고리예를 한국에 처음으로 알리는 성모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셨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채 신부 :** 그것은 좀 과찬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 필요해서 성모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신 것이고, 저도 일익을 담당했을 뿐이며 또 함께 왔던 다른 두 분의 신부님들이 한국에서 메주고리예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날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의 순례가 있고 또 성모님 발현 언덕에 우리 한국인이 성모상까지 봉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M**

(이 기사는 2007년 10월 21일 메주고리에서 남마르타 자매님이 대구 대교구 채창락 요셉 신부님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 편집부 -)

# 십자가상을 가슴에 안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자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회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  
신 예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라  
고 너희 모두를 부른다. 너희를 사  
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린 자  
녀들아, 묵상하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에 열리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2007년 9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의 체험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사랑은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번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라고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신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해골산에 오르시어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당대의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포함하는 미래의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셨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바치셨다. 온 세기의 모든 인류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대 받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날의 나와 너,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분은 우리를 벗으로 여기셨고, 당신의 벗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셨다.

십자가 아래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류를 위해 기도하셨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이도록 초대하신다. 성모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사랑해야 한다. 십자가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보자. 십자가상을 가슴에 안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자. 십자가상에 입을 맞추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보자.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앞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어린 자녀들아, 묵상하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에 열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사순절에만 등장하는 소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매일 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봉헌하며 온 인류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셨다.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마음을 열고 내 메시지를 받아들였지만,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 사랑의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둠과 죄가 있는 곳에 사랑과 빛이 되라고 나는 너희를 부른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 나의 부르침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2007년 10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1981년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메주고리에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 평화의 모후께서는 발현목적증인들을 통해 당신이 발현하고 계신 이유는 오직 우리 인류의 구원 때문임을 수차례 밝히셨다. 이번 달 메시지에서도 성모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을 다시금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으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셨다." 성모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고 계신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시는대로 하여라." (요한 2,5)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은 지금 하느님께서 시키시는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메시지다. 기도, 신앙, 회개, 보속, 그리고 평화를 실천에 옮기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내용의 메시지다. 1981년 6월 24일 첫 발현 이래 지금까지 평화의 모후께서는 이와

같은 주제들을 담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기를 바라신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께서서는 많은 이들이 마음을 열고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을 기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하신다. 성모님께서서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도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하시는 것이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어머니 성모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도록 촉구하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과 기계문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휘황찬란해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세상은 온갖 죄로 물들어 있다. 자신들의 삶에서 철저히 하느님을 배제시키고, 지상적인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둠과 죄가 있는 곳에 사랑과 빛이 되라고 나는 너희를 부른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사랑과 빛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죄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빛이 되어줄 수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지상의 모든 당신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나의 부르침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송구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자. **M**

# 연재를 마치면서 ...

윤 종식 디모데오 신부 / 의정부 교구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동방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11월 21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세기의 외경인 '야고보의 원복음서'에 의하면 마리아는 세 살 때 요아킴과 안나를 따라 성전에 갔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위해서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리아는 주님의 성전에 머물며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양육되었고 천사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먹었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항상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축일은 유스티니아노 황제(565년 사망)가 동정녀께서 하느님께 봉헌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대성전을 지어 성모님께 봉헌하여, 543년 11월 21일에 축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8세기에 '하느님의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축일이 모든 동방 교회에 퍼져 나갔고, 14세기에는 서방 교회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자헌 축일의 성서적, 역사적인 근거가 희박하여 전례력에 넣었다가 제외하기를 반복하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서에서 읽혀지는 마카베오서 하권 7장의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 이야기는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으로 모성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성모 마리아의 십자가 아래에서의 깊은 아픔을 미리 보여 주는 듯 합니다. 이어지는 화답송 시편 17편에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담아 간절히 청하며 굳건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깨어날 때 주님 모습으로 흡족하리이다.' 라는 후렴을 통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늘 그분과 있겠다는 열의를 봉헌합니다. 종들의 충실성을

알아보는 '미나의 비유'(루카 19,11-28)를 통해 복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창조물들인 우리는 하느님께 받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얼마나 하느님과 이웃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성실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성모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례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모 마리아' 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가 성모님에 대한 축일들을 전례력에 잘 배치하여 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음에 무척 놀랐습니다. 사목자들의 큰 사명감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으며 '사목자들이 가장 먼저 성모님에게 신앙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마리아의 공경' (1974년)에서 교회가 동정 마리아를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께서 신자들의 모범이신 것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책임있게 받아 들이셨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셨고 실천 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루카 1, 38 참조).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셨으며, 그 힘은 사랑과 봉사의 정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은 마리아께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35항).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규정의 실제 사목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목자들의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첫째, 영혼들을 돌보는 사목자들 중에는 신심 기도를 우선적으로 경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도권이 장려하는 올바른 기도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애으로써 채워주지도 못하는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신심 기도문들을 없앨 것이 아니라 전례와 조화시켜야 한다는 공의회가 가르침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례적으로 사목적인 올바른 기준도 없이 신심 행사와 전례 행사를 혼합시켜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9일 기도나 이와 비슷한 신심 행사들을 미사 성체에 삽입시킴으로써 빚어집니다. 이는 주님을 기념하는 제사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최고의 집회가 아닌 단순한 신심 행사로 전락시키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들에게는 신심 행사를 전례와 뒤섞어놓을 것이 아니라 전례와 조화시키라고 한 공의회 규정의 상기시키고자 합니다.'(31항, 전례현장 13항 참조).

성모님은 '원죄없이 잉태되셨으며', '예수님을 잉태하시기 전에도 수태 중이나 낳으신 후에도 동정'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천'하셨고, '천주의 모친'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어머니'이시며 '참된 신앙의 모범'이시며 '기도의 중재자'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지니셨던 사랑의 눈으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어린 나이에 주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봉헌한 그 마음을 죽는 순간까지 지닐 수 있는 항구함은 하느님께서 창조 때 주신 사랑의 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 같은 순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함께 필요한 세상입니다. 지나친 맹신은 신앙의 기준을 잃은 오류에 빠지기 쉽고, 규정이나 법에 매이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율법주의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인내와 성실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묶어 향기 나는 장미다발로 주님께 봉헌하시며 살아가신 동정 마리아의 신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앙 생활의 기본적인 바탕은 '믿는 것'(성서, 교의)과 '기도하는 것'(전례), 그리고 '살아가는 것'(사목, 일상의 삶)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신앙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을 때 제대로 된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는 것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 동안 이 연재를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M**

## '겸손은 땅이다'

책을 읽다가 '겸손은 땅이다'라는 대목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겸손은 땅처럼 낮고 밟히고  
쓰레기 까지 받아 들이면서도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란 것은 그 동안 내가 생각한 겸손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겸손을 내 몸 높이로 보았습니다.  
몸 위쪽이 아닌 내 발만큼만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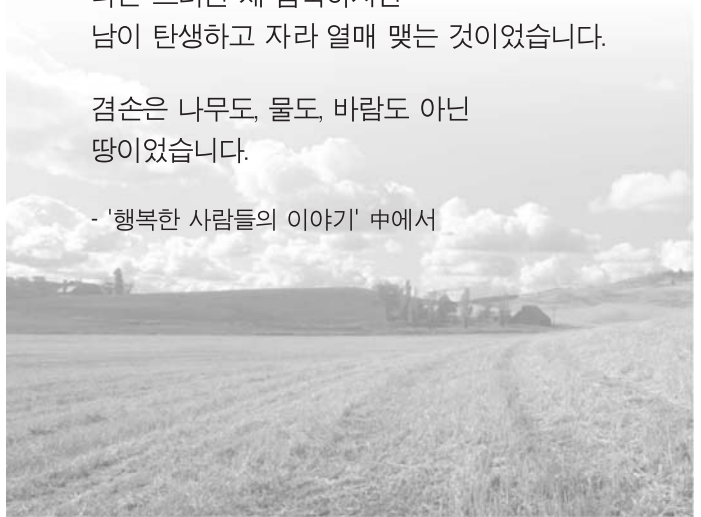
그런데 겸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발이 아니라  
그 아래로 더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밟히고, 놀리고, 다져지고,  
아픈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그 밟힘과 아픔과 애태움 속에서  
나는 쓰러진 채 침묵하지만  
남이 탄생하고 자라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나무도, 물도, 바람도 아닌  
땅이었습니다.

-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 공산당과의 첫 번째 충돌

사브리나코비치 (남기옥 마르타 역)

질문 : 신부님의 첫 본당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는지요?

요조 신부 : 행복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1970년부터 1975년까지 5년을 체린에서 생활 했습니다. 특별히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 내에서 실시되는 신앙 대회나 성경 경시 대회 때 매년 참여해서 우리 본당 신자들과 체린의 어린이들이 항상 일등을 했어요.



찰에 밀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내게 한 말을 반복하십시오. 자매님의 그 말을 통해서 더 이상 아무도 자매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 : 바로 그 마을에서 신부님과 공산당의 마찰이 있었지요?

요조 신부 : 맞습니다. 시로키 부리엑에 가면 화형당하신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이 흘린 피와 불에 타 숨지신 정원을 볼 수 있는 순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말을 들은 공산당원들에게 저와 신자들이 사무실로 끌려가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 성모님의 발현이 일어나기 일 년이 미처 되지 못한 때였군요.

요조 신부 : 메주고리에 본당은 너무 가난해서 사제관 지하실에서 교리교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게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교리교육을 통해 부모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목입니다. 제가 뽀수쇄 본당에서 사목하는 동안 본당의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은 단 한명도 공산당 당원으로 입당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자매가 제게 고백하기를 자신은 오래 전부터 본당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비밀경

질문 : 혹시 메주고리에 본당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은 없었나요?

요조 신부 : 전혀! 오직 본당을 활성화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고픈 욕구의 희망과 열성의 은총은 저를 설 수 없게 만듭니다.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되기 얼마 전, 저는 종신 서원을 하는 수녀님들의 피정 지도를 부탁 받았습니다. 본당이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결심 한 것이 있어서 저도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활동하는 본당, 기도의 영이 움직여지는 본당, 사랑의 영, 믿음의 영, 교회와 이루는 친교의 영이 함께 해달라는 지향을 가지고 이 피정 지도를 맡았습니다. 본당 전체에 그리스도를 향해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이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질문 : 신부님께서서는 피정 지도를 하시고 6월 24일 메주고리로 돌아오셨다구요?

요조 신부 : 아닙니다. 그 날 자그레브에서 교리교육을 위한 조직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25일 날 메주고리로 돌아오다가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즈링코 보좌 신부님께

## 성모님께서 엄마를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서 모스타르 병원에 입원 중이신 제 어머니에게 저를 데려다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처럼 그렇게 하루가 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이 6월 26일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이반코비치 드라가 팔에 붕대를 감고 저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어디갔다 오셨습니까? 신부님이 안계셨을 때 동정 마리아께서 발현하셨다구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빅토르 신부님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팔에다 붕대를 감지말고 머리에다 기부스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 같은데!" 제가 메주고리에 도착한 것은 6월 26일 정오 였습니다.

**질문 :**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나요?

**요조 신부:** 모든 본당 신자들이 본당 사제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예민해 있었고 모두 혼란스러웠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공산당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마약 등을 투여하고 조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본당을 비웠더니, 그새 이런 짓을 저질렀군!' 그들은 제가 그곳에서 사목 활동을 못하고 떠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생각하면서 사제관 층계를 오르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더니 기뻐서 어쩔줄을 모르고 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디에 계셨어요?" 아이들의 환한 얼굴은 모두 마치 봄에 피어난 꽃들 같은 기쁨이 있었고 무척 명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반카라는 아이의 엄마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를 앓고 있었는데 포도밭에서 한창 만개하고 있던 꽃가루로 인한 천식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미사가 봉헌 되던 중, 저는 엄마를 잃은 어린 아이들의 울음을 들으면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었습니다.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고, 모두가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미리야나가 명랑하게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한 시



간 이상 대화를 나누며 발현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그 아이는 강경하게 자신이 본 것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반카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함께 무덤에 들어가려고 올면서 몸부림치던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반카, 성모님께 돌아가신 네 어머니 소식을 여쭙어 보았니?" "그럼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성모님께서 엄마를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반카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싶어하더니 이제는 진정으로 성모님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은 이반카가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합니다.

비스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활달하고 상당히 개방적이었으며 자기가 본것을 빨리 말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말괄량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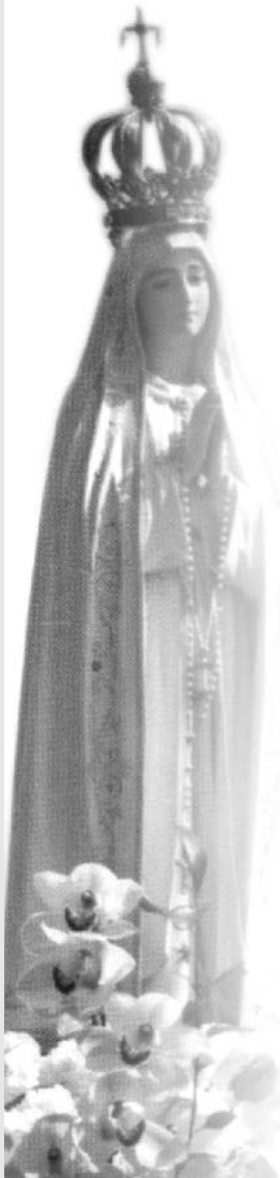
비스카에게도 다른 아이들에게 했던 똑 같은 질문을 했지만 발현 언덕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반카 어머니의 장례에 대해 말해보려고 애썼지만, 계속 동정 마리아에 대한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반 차례가 되었는데, 아이구~ 하느님, 맘소사! ... 그 아이에게는 "예", 혹은 "아니오"라는 대답 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 입니까? 혹시 병어리 아니냐구요?

저는 이반과의 대화에 무척 실망을 하면서 '도대체 겨우 몇 마디만을 할 줄 아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M**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이 메시지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굽비신부님에게 1973년부터 1997년까지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 다섯 번의 첫 토요일

## 79.8.4.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기념일, 이달 첫 토요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엄마의 각별한 사랑으로 너희를 지켜본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갈수록 더 많아지는 너희를 티없는 내 성심에 감싸 안는다.

지금엔 전투의 시기이기에, 너희를 위해 내가 일부러 마련한 무기들을 써야 한다.  
-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할 것. - 거룩한 묵주기도를 자주 바칠 것. - 사람들의 죄가 어머니의 마음에 끼친 모욕에 대한 보속으로, 다섯 달 동안 첫 토요일을 지킬 것.

첫 토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 신비를 묵상하며, 고백 성사와, 미사 성제에 참여하여 보속하는 뜻으로 영성체하라는 나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다.

내 딸 루치아 수녀(\*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던 당시의 나이는 열살이었다.)에게 약속했듯이, 이 다섯번의 첫토요일을 나의 요청대로 경건하게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는 임종 때 특별한 보호와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얻어 주겠다.

영원한 멸망의 위협이 너무도 큰 이때, 너희는 이 천상 엄마의 특별한 보호에 사람들을 맡김으로써 이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티없는 내 성심을 거슬러 자행되는 모욕이 갈수록 퍼져가는 오늘날이므로, 내 자녀들이 바치는 보속 또한 그만큼 증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나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모욕, 나의 영원한 '동정성' 및 하느님의 어머니요 만인의 어머니인 보편적 '모성'에 대한 모욕, 내 성상(聖像)에 대한 모욕이 저질러질 뿐 아니라, 특히 작은 이들의 영혼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고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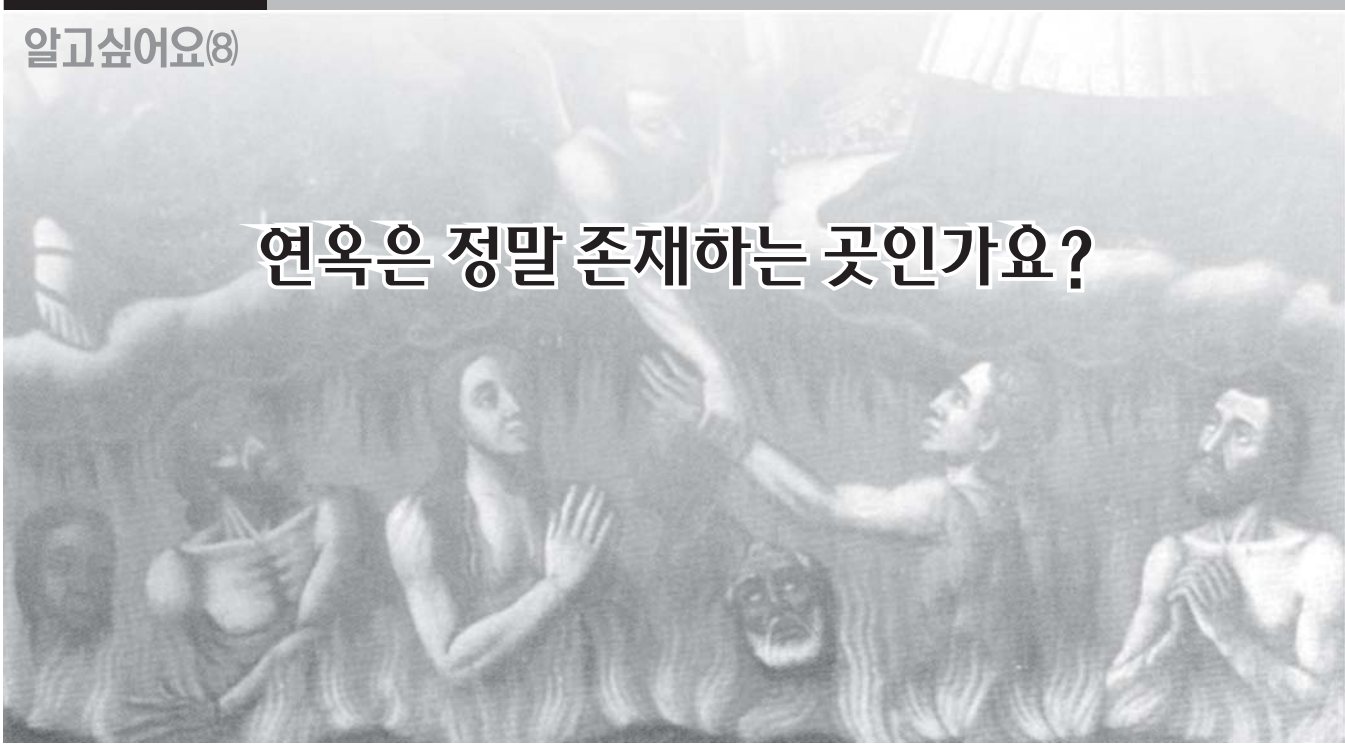
너희를 통해, 이 자녀답고 사랑 가득한 보속의 십자군이 널리 전파되고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매달 첫토요일이 너희에게는 보속의 기도와 나의 요청에 대한 아낌없는 응답이 참으로 만나는 날이 되도록 하여라. 무엇보다,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한 수도자들과 신자들은 이날, 나와 함께 하는 삶의 다락방에 모여야 한다.

이제부터 전투는 더욱 격렬해지리라. 나로서는 너희 모두에게 영적 평화와 안식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너희가 이들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 그러한 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된다. 여기서 이 천상 엄마와 함께 기도하며 보속함으로써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서 보다 큰 보속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서 새로운 힘과 빛을 얻어 너희 시대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M**

# 연옥은 정말 존재하는 곳인가요?



윤 종식 디모테오 신부 (의정부 교구)

저는 태종 교우로서 어려서 부터 분명히 연옥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 한국에서 오신 (...) 신부님께서 연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상징적일 뿐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않으셨나요? 혹시 교회의 가르침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신부님의 개인 생각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LA의 세실리아 -

"요즈음 신학 중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강조하여 '연옥'(Purgatorio)의 의미를 상징적인 존재로 축소시키거나 아예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대적 배경과 트레نت 공의회(1545-1563년)의 '연옥에 대한 교의'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헌장'의 언급,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의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신앙인들이 연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1.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옥은 과거 공의회(피렌체, 트레نت)에서 정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재확인한 '믿을 교리'입니다. 피렌체(1431-1447년)나 트레نت 공의회(1545-1563년)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당시 신자들은 라틴어로 진행되는 공동체 예배인 전례보다 자신들이 알아듣는 지역말로 행해지는 개인적, 지역적 신심 행사들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성당의 전례 공간에서 신자석과 제대 사이가 멀게 배치되어 성직자중심으로 흐른 것도 이러한 신자들의 신앙생활 경향을 도왔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성체를 모시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해서 영성체하는 신자들의 횡수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지옥 갈 수 있다는 불안에 쌓인 신자들에게 연옥 교의는 오히려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연옥 교의는 지상에서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해야 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파들은 자신의 공덕이나 지상의 살아 있는 사람들의 전구와 상관없이 의화은총을 받은 사람은 연옥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트레نت 공의회는 '연옥 (Purgatorio)'에 대한 교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 피렌체와 트레نت 공의회(1545-1563년)의 '연옥'에 대한 교의

피렌체 공의회는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법령(1439년)'에서 "죽은 이들의 운명"(De sorte defunctorum, DS 1304)이라

## 연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파문받는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는 제목으로 연옥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충족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되게 회개한 영혼들은 죽은 이후에 연옥의 별들로 정화된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살아있는 신자들의 간구를 통해, 즉 미사의 희생제사, 기도와 자선, 그리고 교회의 규정에 따라 다른 신자들을 위한 일상적인 희생과 봉헌, 사랑의 다른 실천들을 통하여 이 별들이 완화된 것이다.'

(Denzinger-Schönmetzer,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EDB, Bologna 21996, 581면의 이 테리말을 번역: 이 책을 DS라는 약호로 사용함).

\* 트렌토 공의회 6차 회기(1547년 1월) '의화에 관한 법규' 30항: '만일 누가 의화 은총을 받은 후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벌을 탕감받는데, 이는 하늘나라의 문이 그에게 열릴 수 있도록 현세에서나 내세의 연옥에서 갚아야 할 잠벌의 빛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즉, 의화는 은총을 받은 후에는 연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연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파문받는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25차 회기 (1563년 12월) '연옥에 관한 교령: '... 본 거룩한 보편 공의회를 통하여 연옥이 존재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거룩한 미사성제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왔다. 따라서 본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에게 거룩한 교부들과 공의회들을 통하여 전수되어온 연옥에 관한 건전한 교리가 어디서든지 믿어지고 보존되며 가르쳐지고 선포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감독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 이 밖에도 주교들은 그저 호기심과 미신을 충족시키고 저속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신앙인들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하여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주교들은 살아 있는 신자들이 죽은 신자들을 위하여 예부터 바쳐온 친구, 즉 미사성제, 기도들, 자선 행위와 그 밖의 신심 행위들이 교회의 지침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지도록 돌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교들은 사제들이나 교회의 성직자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의무를 지고 있는 여타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증

이나 기타 사유로 기탁된 기금을 목적대로 온전히 성의를 다해 이행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주세페 알베리고 외 엮음/ 김영국, 손희송, 이정상 옮김,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가톨릭출판사 2006, 681면, 774면) 트렌토 공의회에서는 우선, 회개를 한 죄인이라도 잠벌을 정화시켜주는 연옥과 그러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 3. 지금의 가톨릭 교회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간 중인 1964년 공포된 '교회헌장 (Lumen Gentium)'의 제7장은 순례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 그리고 천상 교회와 그 일치(48-51항)에서 '연옥 (Purgatorio)을 직접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위엄을 갖추시고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때까지 (마태 25,31 참조), 또 죽음을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당신께 굴복시키실 때까지 (1고린 15,26-27 참조),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지상에서 나그네길을 걷고 있고, 어떤 이는 이 삶을 마치고 정화를 받으며, 또 어떤 이는 "바로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계시는 그 대로 분명하게" 뵈옵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49항) 이어지는 50항에서는 순례하는 교회와 천상 교회의 관계가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의 이러한 친교를 명백히 인식하는 나그네들의 교회는 초대 그리스도교 이래로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커다란 신심으로 소중하게 간직하여 왔으며,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유익한 생각이기 때문에 (2마카 12,45 참조),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를 바쳤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라틴어 대역,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2, 281면, 283면)

먼저, 연옥은 이미 단죄 받아가는 지옥과 달리 정화의 시간을 통해 순수하게 변화된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1992년 확정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1030항-1032항)에서 '마지막 정화 - 연옥'라는 제목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30항.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1031항.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 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 교리를 특히 피렌체

공의회와 트렌토 공의회에서 확정하였다. 교회의 전승은 성서의 어떤 대목들을(1고린 3,15; 1베드 1,7) 참고하여 정화하는 불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마태 12,32)이라고 진리이신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심판하기 전에 정화하는 불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죄들은 현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죄들은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대화집」, 4, 41, 3: SC 265, 148 (4, 39: PL 77, 396)).

1032항. 이러한 가르침은 성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유다 마카베오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

##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었다" (2마카 12,45). 교회는 초기부터 죽은 이들을 존중하고 기념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미사 성체를 드렸다. 그것은 그들이 정화되어 지복직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자선과 대사(大赦)와 보속도 권한다.

"그들을 도와 주고,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번제로 정화되었다면(욥 1,5),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봉헌 제물이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을 왜 의심하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고린토 1서 강론」, 41, 5: PG 61, 361)

### 4. 연옥 교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연옥'은 죽은 이들이 정화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둘째, 단죄 받아 지옥으로 향한 이들과 달리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대상입니다.

셋째, 불에 의한 정화는 교의가 아니라 성서의 구절(1고린 3,15; 1베드 1,7)을 해석한 교회전승의 내용으로 정화에 사용되는 도구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연옥 영혼들을 위한 산 사람들의 기도와 그에 따른 행위들이 그들의 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옥 교의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살다가 죽은 이들이 아직 미진한 자신의 영혼 상태 때문에 정화과정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비체인 교회는 사랑의 연대감을 통해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영혼들의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지상에서의 씻지 못한 죄에 대해서 정화할 장소가 있고, 지상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옥 교의를 통해 교회는 지상과 천상의 형제들이 활기찬 통공을 통해 일치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현장 50항 참조)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화, 수난,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구원과정을 통해 당신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조 때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그분을 직접 뵈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장소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사랑의 선물 아닐까 합니다. **M**



### 파티마의 루시아 수녀가 본 지옥에 대한 환시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세명의 어린이 환시자들에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희생을 바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루시아 수녀는 자신이 본 지옥에 대한 환시를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바로 두달 전에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손을 한번 더 펼치셨습니다. 빛의 광선이 지구를 꿰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불바다를, 마치 실제적인 것처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불속에 빠져 있는 저주받은 영혼들과 마귀들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들은 인간 형상을 지녔고, 모두 검거나 혹은 가열된 낫쇠 색깔을 띤 불꽃은 투명한 검불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큰 불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연기 구름과 함께 그들 내부로부터 분출된 불꽃들에 의해서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게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고통과 절망의 신음과 비명소리 속에서 거대한 불덩이에서 튀어나오는 불뿔처럼 그 영혼들은 사방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이 장면에서 공포로 인하여 내가 울부짖었던 소리였음을 확신합니다). 마귀들은 불타오르는 석탄처럼 검고 투명했으며 무섭고 알려지지 않은 짐승처럼 생겼는데 겁나게 하고 혐오감을 준다는 면에서 저주받은 그 영혼들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오직 잠시만 지속되었습니다, 우

리의 좋으신 하늘의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처음 발현하셨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6명의 메주고리에 목격 증인들이 본 연옥

질문 : 당신은 연옥을 보았습니까?

미리야나 : 네. 여러 단계가 있는 연옥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연옥에서 더 높은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연옥에는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었습니까?

미리야나 : 가장 낮은 단계는 지옥에 가장 가까웠고, 고통도 가장 심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연옥은 천국과 비슷했고, 고통도 아주 적었습니다. 연옥의 어떤 단계로 가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영혼의 순수성에 달려 있습니다. 연옥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더욱 고통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기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도하는 것을 더욱 즐기게 되고 따라서 고통도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 :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옥에 머물니까?

미리야나 : 저는 모릅니다. 다만 성모님께서서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는 날은 대부분 성탄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당신이 천국과 연옥을 볼 때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반카 :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그림을 보듯이 그 장소들을 보았습니다.

질문 : 왜 당신에게 천국과 연옥을 보여주셨나요?

이반카 :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선택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상기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질문 : 당신이 본 연옥은 어떠했나요?

비즈카 : 처음에는 천국, 그 다음은 연옥,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공간의 연옥에서 사람은 보지 못하고, 단지 안개와 회색 연기만 봤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재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흐느끼고 신음하며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목격자들

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특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필사적으로 갈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반이 순례자들에게 말하기를, 성모님께서 연옥 영혼들은 매우 외롭고,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비츠카 :**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지상에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용서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비츠카, 용서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비츠카 :**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보다 우리 자신이 더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질문 :** 사후에 연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질문 :** 연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반 :** 네. 성모님께서서는 연옥에 가는 사람들은 단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믿은 사람들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며, 설혹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을 경우, 연옥으로 갑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바로 갑니까?

**이반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위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고통 받을 것입니다.

**질문 :** 야콥, 당신은 연옥에 가 보았습니까?

**야콥 :** 성모님께서 비츠카와 저에게 연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콥 :**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질문 :** 연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리아 :** 네, 연옥은 아주 넓고 뿌연 연기 같은 잿빛이 자욱한 곳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마치 깊은 구름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안개 속에서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들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잠시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연옥에 가서 하느님이 계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연옥에 있는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고통은 지금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지상에 있을 때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그들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의 기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느님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

(위의 내용은 우주의 여왕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41호 소식지 '메주고리에는 어떤 곳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



## 지옥과 천국의 환시 '파우스티나 성녀' 변화의 해 (1936)

(이 피정에서 파우스티나 수녀는 신비적 일치의 경험을 가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지옥을 보았다.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 어느 한 순간에, 긴 세월 동안 묵상과 명상을 통해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오늘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을 이루는 첫째 고문은 하느님의 상실이다.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셋째는 조건의 불변이다.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는 않은 채 파고드는 불길인데, 하느님의 분노에서 나오는 영신적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다섯째 고문은 연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구나 이 암흑 가운데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시달림,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하느님의 증오, 천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있다. 각 영혼은 각자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섭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각자 겪는 고통이 다른 동굴과 구덩이들이 있다. 만일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광경을 보고 까무라쳤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에 의해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심연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악마들은 나를 증오했으나,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순종하였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 변화의 해(1936) ; 천국의 환시

파우스티나 수녀는 전에 연옥과 지옥을 본 일이 있었다. 11월 27일 몸이 약해 누워있을 때, 다음과 같이 천국에 대한 환시를 기록하였다.

오늘 나는 정신적으로 천국에 가 있었다. 나는 사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보았다.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았다. 이 행복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행복에서 나오는 영광과 찬미는 행복의 원천인 하느님께 되돌아간다. 그들은 끝없는 하느님, 하느님의 내적 생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명상한다.

이 행복의 원천은 그 본질상 불변의 것이나, 항상 신선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행복을 쏟아 붓는다. 하느님께서 하느님 눈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조그마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충실히 사랑하는 영혼에게 내리시는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하느님의 엄청난 엄위로우심을 보고도 나는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총과 계급에 따라 하느님을 숭배한다는 사실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내 영혼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찼다. 하느님의 위대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도 더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즐거웠다. 내가 작음을 보고 기뻐다. 왜냐하면 내가 작아야 하느님께서 나를 품안으로 데려가 성심에 보다 가까이 안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하느님,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그들을 감싸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정(父情)어린 가슴에 껴안으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 변화의 해(1936) ; 시련과 은총의 시기

내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적들은 내 발 아래서 흩어질 것이다. 그가 가진 불신이 그가 짓는 죄보다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준다고 전하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어려움은 다 내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 중재의 고통과 불타는 사랑(1937) ; 순명의 가치

내 딸아, 긴 기도와 극기를 하는 것보다 한 가지의 순명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 내 딸아, 너는 네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살고 있다. 그들을 위해 기록하여라. 네가 글을 써야 한다는 내 뜻을 고백신부들을 통해서도 알았을 것이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내가 하는 말에 의혹을 지녀왔다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지도 알고 있다. 나는 그에게 내 일을 판단할 빛을 주었다. 나는 그를 지켜 보고 있다. 내 요구보다 그의 판단을 따라라. 그가 내 뜻에 따라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가 내 뜻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너는 그에게 순명하면 된다. M

(파우스티나 성녀 - 자비는 나의 사망 중에서..)



# 가족들과 죽은 친척들의 영혼들을 연옥에서 구하는 기도문

## 성 미카엘 대천사의 약속

어느날 성 미카엘 천사가 주님의 가장 헌신적인 종 안토니아드 에스토낙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천사들의 아홉가지 품과 일치하는 아홉가지 기도로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각 천사의 품을 공경하는 뜻으로 매 기도의 끝에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세 번을 바치십시오.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미사에 나아갈 때 각 9품에서 1명씩 선택된 9명의 천사들의 호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매일같이 바치는 사람은 살아서는 나와 천국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얻을 것이며 사후에는 그와 그의 친척들까지도 우리가 연옥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오, 영광의 왕자 성 미카엘 대천사여!

천국의 사령관이여, 영혼의 보호자여, 반항하는 영들의 정복자여 천상 왕가의 종이여!

우리들의 놀라운 지도자, 사람들의 힘을 능가하는 덕과 뛰어난 덕으로 빛나는 성 미카엘! 비오니 우리들을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당신께 굳은 신뢰를 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총이 넘치게 보호해 주시므로써, 우리는 매일 매일 하느님을 더 충실히 쫓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오, 영광스런 성 미카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왕자! 우리를 위해 전구하여 그리스도의 언약하신 바를 얻게 해 주소서.

###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애로우신 뜻으로 온 인류를 당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당신 교회의 왕자이신 성 미카엘 대천사를 정하셨습니다. 당신께 이 성 미카엘 대천사를 통해 간구하

오니 저희들을 모든 적에서 구하시되, 특히 임종때 저희를 방해하는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이 천사들이 저희의 임종시에 악의 방해가 없이 당신 대전 앞에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 수호천사께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여! 인자하신 주님께 서 저희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 ○ 평화의 모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3번) **M**

(자세한 내용은 '천사들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





##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로제 수사 (떼제 공동체 창설자)

우리는 때때로 '내적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자문해 봅니다. 전망이 보여서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신뢰로써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어둔 밤 그대가 샘물을 찾아 나설 때, 신뢰를 향한 목마름이 그대를 내적으로 비추어 줍니다. 그대는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들어 주소서, 어린이 같은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서 신뢰심부터 가진다면... 크건 작건 만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그대는 멀리, 아주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를 고립시키는 불안감, 결코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는 그 불안감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의 눈길로 모든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인류가 서로 찢겨 싸우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도 신뢰의 누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신뢰하며 시작한다면 "나는 도대체 뭘 하려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신뢰심이 휩쓸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대 안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뢰하는 마음을..... 오직 하느님 곁에서 평안히 쉬어라. 두려우냐? 내가 여기 있다."

그래도 그대는 "직장의 여건이나 사회의 회의적 분위기, 과거의 모든 일 등이 하느님을 믿은 데서 나를 너무나 멀어지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라 해도,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

다. 그런 신뢰심은 흔히 그대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기에, 그 심연으로부터 내면의 모든 단계를 거쳐 끌어올리듯이 신뢰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매순간 자신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잠시 그분을 잊었다면 다시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 드리십시오. 마음의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대의 사막에서까지도 성령은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단 한 마디 말만으로.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대는 마냥 좌절감과 회의에 빠져만 있을 건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대가 알건 모르건, 그분은 그대의 캄캄한 어둠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밝히십니다. 그분은 그대 마음의 가시들과 함께 내면의 유혹도 태워 버리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돌조차 빛을 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놀랍게도 우리는 그 깊은 내면에서 사랑을 향한 무언의 기다림을 발견할 것입니다. 거부당하고 무시될 수 있어도 이 갈망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대가 거의 사랑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한다고 느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에게 "나는 끝없이 한결 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더듬거리며 답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숨결인 성령이시여,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 일생 동안 수백번 거듭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이 신뢰는 아주 단순하기에 모든 사람이 지닐 수 있습니다."

(샘에서 생기를에서 받춰)



# 예수님,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옮김 /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회

1) 예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보내주셨으니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모든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셨으니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아버지의 추수 밭에 첫 일꾼으로 오셨으니 당신을 믿나이다!

2) 예수님, 저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인류 구원 사업에 첫 동역자이셨고, 당신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으니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그분은 기도와 희생으로 당신을 가까이 따르셨기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여, 당신께서 인류의 공동구속자, 대사제의 어머니, 사도들의 어머니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과 협력하신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은 모든 사제들의 어머니, 온 교회의 어머니,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이십니다. 마리아여, 성부께서 당신을 미리 준비하시고, 구원 계획에 당신을 참여시키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제가 당신처럼 하느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메시지에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린다. 특히 오늘도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때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그 은총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기 바란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는 마음으로 너희 걸음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6년 12월 25일)

- 예수님, 저는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의 계획들이 실현되도록 저 자신을 당신의 섭리에 맡기나이다.  
(침묵중에 이 기도를 반복한다.)

3) 예수님, 예언자들을 부르시어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에 초대하며, 사람들과 나라들에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경고를 주신 성령 안에서 성부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구원 계획에 참여한 모

든 이들과 함께 당신을 찬미합니다. 예수님, 저는 그들과 더 붙어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저는 제가 약하고 합당치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협력하고 싶습니다. (참조: 예레 1: 4-10, 17)

예수님, 당신 교회에 예언자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당신 백성에게 보내주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하며, 그를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당신께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오늘 저는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소서. (침묵중에...)

4) 예수님, 당신께서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희도 그와 같이 기도하도록 저희를 초대해주셨으니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적고 있습니다.

(참조: 마태 9:35-38)

아버지께서 추수 밭의 주인이시고, 추수할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하느님 백성입니다. 주 예수님, 젊은이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당신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당신의 다스림을 세상에 퍼뜨리고 성장시키는데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모든 부모들, 교사들, 그리고 당신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주소서. 아버지, 저는 당신 추수 밭의 첫 일꾼이신 예수님과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침묵 중에 가정, 공동체, 자신에 대해 묵상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5) 예수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해 당신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뽑으시고, 교육시키고 파견하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고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참고: 마태 10:1)

예수님, 당신께서 오늘날 똑같은 사명을 주시고 파견하시

는 모든 사제들과 주교들 그리고 교황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소명을 완수하게 해주소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쳐주게 하소서. 당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표징과 기적이 그들을 따름으로써 그들이 참으로 당신 제자들임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삶에 지쳐서 환멸을 느끼며 고독한 사람들을 굶어보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통하여 그들 자신을 포기하고 당신 안에서 쉬게 하소서. 당신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모든 이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소서.

(세례를 준 사제, 견진을 준 주교, 모든 교리교사들과 본당의 사제들, 부제들 그리고 수도자들을 기억하고 봉헌한다.)

6)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첫 번째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오도록 불러주신 그 순간을 감사드리고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마태 4: 18-19)

예수님, 오늘 저희 가정, 학교, 거리 그리고 젊은이들이 만나는 장소들을 지나가시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소시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고, 사명에 헌신하게 하소서. 그들이 가는 길에 성령께서 함께 동반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젊은이들이 당신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이 청원 기도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복한다.)

7) 예수님, 당신께서 부르셨기에 이미 사제직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당신께 응답하고, 진지하게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마음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모든 신학교와 수련소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교육되는 모든 장소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응답한 이들이 당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그들의 성소를 향해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의 문제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들이 참된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소서. 그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당신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지셨던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그들이 교육받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기



를 간청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손상되지 않고 더욱 더 강하게 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지는 사람들에게 잘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당신과 삶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하소서.

(수도자들과 성소를 지향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8) 예수님, 당신의 사도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며 표징과 기적으로 그들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으니 당신께 흠숭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땅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안에서 찬미를 받으소서. 그들을 부르신 분은 바로 당신이 시기에 당신께서는 그들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지금 시련과 박해를 겪고,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알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불러주십시오. 그들이 흔쾌히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어 온 땅의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예수님, 거짓 신앙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회개시켜주시고, 모든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일치시켜주시어 그들이 사랑과 일치로 당신을 전파하게 하소서. 당신은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이고, 다른 이름들을 통한 구원은 없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다.)


9) 예수님, (...) 당신께서는 많은 이들이 기쁘게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삶의 의욕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지쳐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성소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께서는 또한 방황하고, 소명에서 멀어져 타락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들을 돕고,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되돌려 주실 수 있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당신 사랑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제들과 수도자들, 특별히 성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 10) 축복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능력을 주시어 부르시니 당신은 참된 "사람 낚는 어부" 이십니다. 이제 모든 사제들과 수도자들, 주교들과 교황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들이 기쁘게 신앙의 신비에 봉사하게 하소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주시며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대사제요 착한 목자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 평화의 모후 음악선교단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1) 일시: 매월 둘째, 네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등촌동 성당 02-2644-6633**  
**서울 양천구 목 3동 626-15**

**2)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 미사**  
**일시: 매달 세번째 월요일 오전 10시**  
**(평화의 모후 기도회와 미사, 성시간)**  
**장소: 평화의 모후 선교회 017-785-3535**







## 제 12 차 국제 사제피정에 참여한 주교와 628명의 사제들의 체험담

\* 나는 이 국제 사제 피정에 세 번째 참여하고 있다. 토 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님께서 강연을 맡아주셔서 개인적으로 기쁘다. 삼 년 전에도 신부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이곳의 사제 피정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올해 사제 피정에서도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반치치 신부님께서 강단에 오르셨을 때, 하느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 참으로 좋다. 작년부터 이 사제 피정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매 년 두 서너 번씩 이곳 메주고리예를 방문하고 있다. 이곳에 혼자 와서 느끼는 성모님의 현존이 좋다. 메주고리예는 벌써 삼십여 번 넘게 방문했지만 순례자들과 함께 왔던 기억은 다섯 여섯 번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교구 주교님을 모시고 오기도 했었다. 이반치치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 강연을 해주셨을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놀라운 강연을 하셨다. 신부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셨으며, 현 시대에 존재하는 많은 의문에 분명한 답을 해주셨다. 교수 신부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쁘다.

\* 이번 피정에 세 번 연속 참여하고 있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사제 피정이다. 피정 중의 기도는 강렬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해준다. 거룩한 미사성제와 성시간에 참여하면서 믿음에 대한 크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모든 체험이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느님께 진정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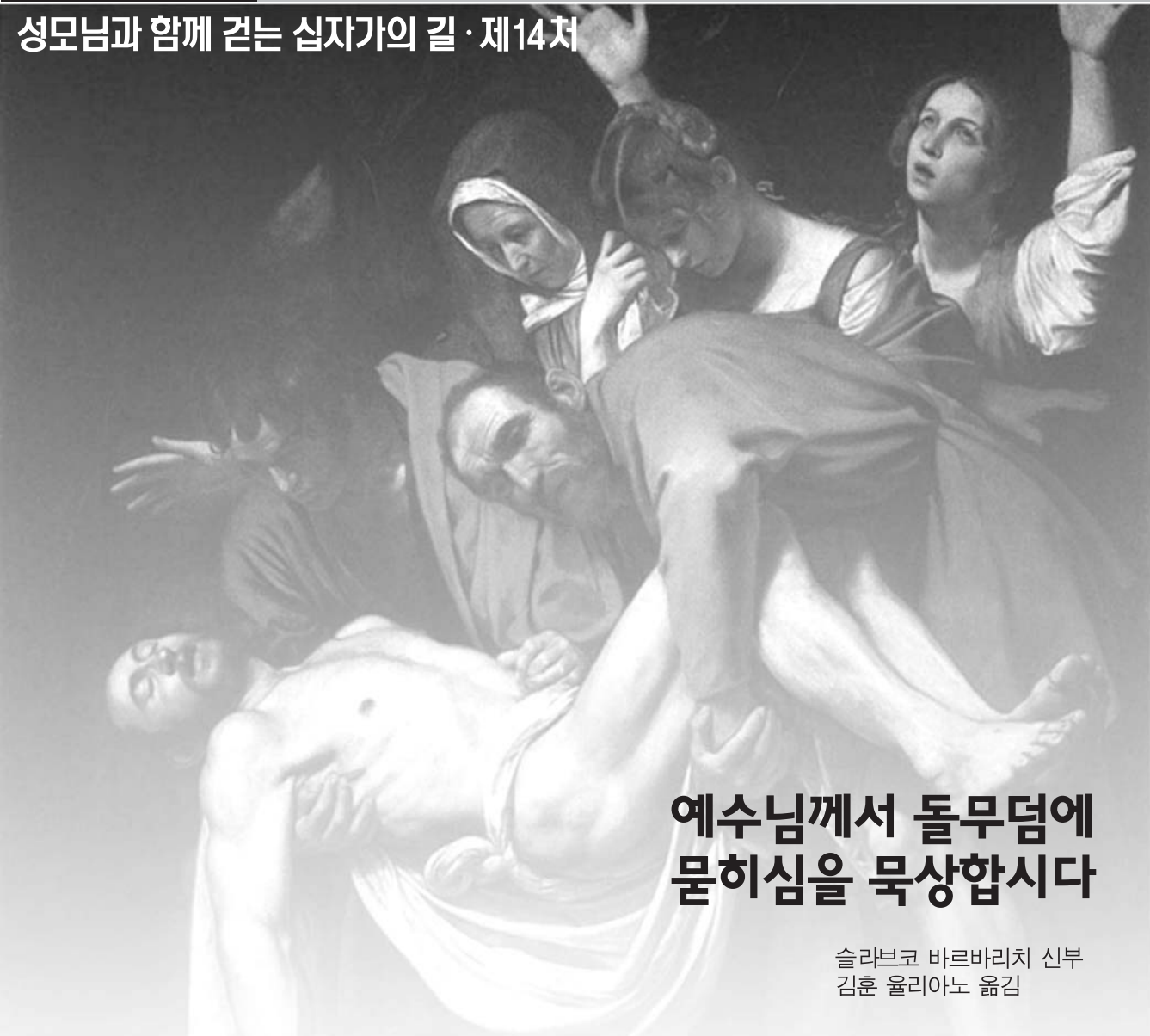
\* 독서말씀들이 내 마음을 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그분과 끊임없는 관계 유지. 제 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사제 직무.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 나는 매년 이 사제 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강사 신부님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강연했다. 나는 15년 전에 벨기에에서 창설된 "평화의 어머니" 공동체 회원이다. 올 여름 우리 교구장님께서 이 공동체를 수도회로 인준하셨다. 올 성모승천 대축일에 우리 수도회 회원들이 처음으로 종신 서원을 하게 되고, 나는 올 10월 6일 즉,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축일 전야에 사제로 서품될 것이다.

\* 나는 로마에서 교부학을 전공하고 이탈리아에서 사목하고 있는데 이 사제 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꼭 와보고 싶었다. 피정 중에 가치 있는 많은 주제들이 겸손하게 다루어졌다. 강연을 해주시는 신부님은 관상 기도를 하시고, 기도 체험이 많은 분이심을 알 수 있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강의할 때,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강연 중에 들은 인상적인 말은 가톨릭 사제들은 세상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답은 우리들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타종교와 다른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그 답을 우리 가톨릭 사제들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는 라디오 마리아 방송국의 자원봉사자다. 오래전부터 메주고리예에서 이루어지는 사제 피정과 젊은이 국제 페스티벌을 독일어권 지역과 오스트리아와 남부 티롤 지역에 라디오로 중계해오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 나는 2년 6개월 전에 아르스에서 있었던 사제 피정에 참여했었는데, 그곳에서의 피정이 나를 이곳 메주고리예의 피정으로 이끌었다. 이곳에서 사제는 교회의 놀라움을 깨닫고, 다양성 속에 있는 보편 교회인 가톨릭 교회를 현실적으로 감지하게 된다. 서로 다른 문화로부터 온 사제들이면서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놀라움이다. **M**



##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김훈 율리아노 옴김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묵상 : 콜로새 2:12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코린토 전서 15:54 —57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묵상기도 :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제물이 되시어 죽으신 후 돌무덤에 묻히심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간의 죽음이 파괴되었습니다.

천주 성자 예수그리스도여! 찬미와 감사 그리고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예수님의 무덤앞에서 제 인생과 종착점을 내다보며 새로이 결심합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 인생을 마감할 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제 삶과 죽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바치려 하오니 모두 받아주소

서. 제가 죽기 전, 구원에 합당한 성사를 받아 예수님께서 저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은총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언제나 저를 깨어있게 하시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살게 해 주시며 세상살이 곳곳에서 저의 앞길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과 세상의 유혹과 욕정을 없이하여 주소서.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참다운 회개를 통해 영혼의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두려움을 없애주소서.

준비 없이 죽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 죽음을 준비할 여유 없이 목숨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양심이 마비된 살인자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목숨을 빼앗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억울한 이들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시어 광명의 하늘나라로 인도주소서.

예수님의 돌무덤 앞에서 메주고리에 순례자 모두와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주님의 빈 돌무덤을 밝힌 빛살을 이들 모두에게 비추어주소서!

성모님! 제가 죽을 때, 제 곁에 계시옵소서.

어머니의 품에 저를 안으시어 저의 삶에 성모님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의 낡은 인간을 청산하여, 제 안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악을 없애주시어, 새 인간으로 갈아입게 해 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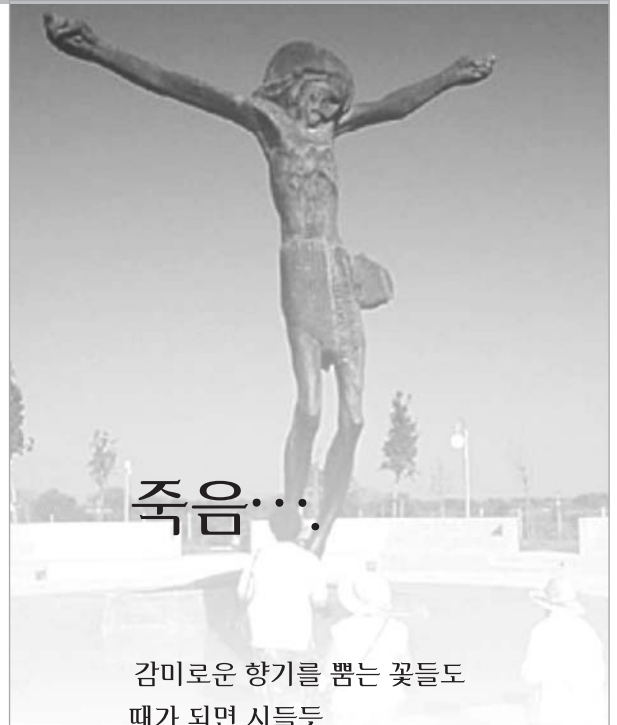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처럼 오래 머무르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너희가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모두 실천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서 고맙다." 1986. 10. 30

주님기도, 성모성, 영광송

(제 15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M**



## 죽음...

감미로운 향기를 뿜는 꽃들도  
때가 되면 시들듯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한 순간이면 지나가 버리는 것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베푸는 것보다는 탐욕으로  
가득찬 나날은 아니었는지...

황량한 가을 들판에  
바람에 날리는 낙엽되어  
당신 자비에 이 몸을 맡깁니다.

헛되게 살아온 삶들  
욕심을 버리고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마음의 빈 무덤 만들어  
가만히 누워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최혜숙



## 우주의 여왕

### 6명의 메우고리에 발현목격증인들의 인터뷰 (1)

저자 : 잔 코넬(Jan Connell)

옮긴이 : 신경남 /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 책은 카푸친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신 신경남 신부님께서 성모님께 바치시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연재 될 이 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메우고리에 성모님 발현의 진실과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편집부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이 책을 봉헌합니다.

## 메우고리에 나무에서 맺힌 그 열매는 좋은 것이었다.

- 데이비드 마누엘 - 편집인

처음 메우고리예를 방문했을 때, 나는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왜 마리아인가? 왜 하필이면 메우고리에인가? 정말 메우고리예의 발현은 진짜일까? 세상 종말의 시기에 나타나는 빛의 천사(역자 주: 루치펠, 사탄)가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마태 7:18) 내가 메우고리예에서 발견한 것은 메주고

리에라는 한 마을 안에서 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걸쳐 심오한 영적인 자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자각은 순례자들이 메우고리예에서 체험한 바를 실천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메우고리에 주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참으로 겸손했고, 남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로서가 아니라 삶 자체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나는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잠시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보기를 바란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고통을 겪고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체험해 본다면, 내가 왜 그 경험을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메우고리예에서 발현 목격증인들과 함께 시간을 지낼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나는 그들이 매우 정상적이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힘든 의무들을 기쁨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하는 일은 누가 동경을 가진다고 해서 맡겨질 일도 아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서 인간적인 어떠한 교활함도 발견하지 못했다. 메우고리에 나무에서 맺힌 그 열매는 좋은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메우고리예에서 매우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 마리아를 보내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계신 것이다. 성모님께서 단지 가톨릭 신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톨릭"이

니 "개신교"니 하는 말들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어머니

로버트 패리시, S.J.

패리시(Faricy) 신부는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 영성신학 교수이다. 현재 미국 예수회 회원인 그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네소타 출신이다.

1981년 6월 24일, 아드리아 해안에서 가까운 보스니아 산악 지역 마을 메주고리에 외곽을 걷던 두 소녀, 미리야나 드라기체비치와 이반카 이반코비치에게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발현하셨다. 성모님의 발현을 먼저 목격한 이반카가 미리야나에게 말했다, "언덕 위에 뭔가 있어. 좀 봐!". 두 소녀는 밝은 빛과 함께 그 안에서 빛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이반카는 말했다, "미리야나, 저 분은 성모님이 아니실까?" 미리야나는 손을 저으며 "뭘! 성모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게 말이나 되니?" 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너무 놀라 도망치고 말았다. 다음날 두 소녀는 친구 몇 명을 더 데리고 그 자리를 찾았다. 다시 빛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이 때 두 소녀와 동행했던 십대 청소년 세 명과 어린 소년 한 명이 그분을 직접 목격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은 당신이 성모님이심을 확인시켜주셨고, 다음날 그들에게 다시 발현하셨다. 발현목격증인으로 불리워지는 이들 여섯 명 가운데 세 명에게 성모님은 지금도 매일 발현하고 계신다. 1981년 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보스니아는 공산 압제 아래 놓여 있었고, 공산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노했다. 성모님 발현이 시작될 당시 메주고리에 본당신부였던 프란치스코회 요조 조브코 신부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성모님 발현에 충성을



다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여섯 명의 어린 발현 목격증인들은 지역 경찰들에 의해 말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협박을 받았다. 또 정부는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현 초기부터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에 함께 하는 이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메주고리에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메주고리에 본당 주임신부와 다른 사제들, 그리고 그곳 수녀들은 늘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분야에 정통한 모든 신학자들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이 참되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마리아께서 실제로 발현하시어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는다.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황님(역자 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메주고리에 발현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988년 교황님께서서는 브라질 산타 카테리나 구교 무릴로 크리거 주교에게 "메주고리에에는 위대한 영성의 중심지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보라고 격려 하셨다. 교황님께서서는 주교들을 포함하여 메주고리예를 순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모두 메주고리예에서 배운 것을 전부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교황님께서서는 손수 유고슬라비아 주교 회의를 소집하여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의 진정성에 대해 조사케 하셨다. 이는 교황으로서의 최초의 사례이다. 유고슬라비아 주교 회의 산하 조사위원회에서는 성모님 발현과 관련된 증거들을 조사해 왔으며, 메주고리예는 성모님 발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순례가 가능한 성모발현성지로 인정받고 있다. 이 또한 최초의 사례이다.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과 관련된 많은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있다. 사람들이 태양의 이상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목주의 금속 부분이 금색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신학자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들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나 또한 목주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목격한 바 있고, 메주고리예에서 맨눈으로 태양을 직접 쳐다보았으며, 태양이 빙빙 돌면서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쩌면 단순히 정신

착란 현상으로 취급되는 것이 더 쉬울지 모른다. 내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에는 잠시 정신이 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치유 사례에 관해 말하자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의학적인 보고서들이 쌓여 있으며 현재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러한 현상들은 하느님께서 손수 보여주시는 당신의 놀라운 업적이시기는 하지만, 발현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여 당신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바로 그것이 성모님 발현의 핵심이다. 그리스도교 역사상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정기적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발현하신 경우는 결코 없었다. 더욱이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은 우리를 새로운 성모 마리아의 시대로 안내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프리카,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남부,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의 애리조나 등 세계 곳곳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들은 꽤 믿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메시지들은 메주고리에의 메시지들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러나 수많은 가짜 발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첫째로**, 성모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죄스러운 관계들, 습관, 행위, 타인을 향한 험담과 중상모략, 나태함 등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두 번째** 강조점은 신앙이다. 마리아께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거나 사랑 가득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 중에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세 번째** 강조점은 기도이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신다. 성모님께서 성당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며 기도, 특별히 묵주기도,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바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미사에 참례하고 고해성사를 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고해성사 또한 미사와 마찬가지로 성사적인 기도의 한 형

태이기 때문이다.

### 성모님은 보속, 특히 단식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단식은 우리의 현재 건강 상태나 하고 있는 일, 연령 등을 고려해 행해져야 할 것이지만, 우리 모두 단식을 요구받고 있다. 단식은 특별한 날에 한정지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메주고리에에서 마리아께서는 전통적인 단식일인 수요일과 금요일에 빵과 물로 단식하라고 요청하셨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음식이나 흡연, 커피, 기타의 것들을 멀리하는 형태의 단식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것은 탐닉의 또 다른 유형이거나 자세의 문제일지 모른다. 만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포기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평화'라는 결과물을 가져다준다. 만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회개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주님과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에 옮긴다면, 그리고 우리가 보속, 특별히 단식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평화가 넘치고, 세상은 더욱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메주고리에의 메시지 속에는 매우 긴박함이 깔려 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성모님께서 발현목적증인에게 세계의 미래에 관련된 열 가지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반카, 미리야나 그리고 야콥은 이미 열 가지 비밀을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매일 성모님을 뵈지 못한다. 나머지 세 사람인 비즈카, 마리아 그리고 이반은 아홉개의 비밀을 받았다. 그들이 열 번째 비밀을 받게 될 때, 아마도 그들 또한 매일 성모님을 뵈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정화의 시기에 대한 심각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는

#### 메주고리에의 비밀

비밀들에 관해서 우리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매우 심각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처음 두 개의 비밀은 경고이다. 세 번째 비밀은 성모 마리아께서 이반카와 미리야나에게 처음 발현하셨던 포드브르도(발현산)에 남겨주실 일종의 영원한 표징이다. 성모님은 미리야나에게 물으셨다. "만일 네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면서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그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저는 아마도 미쳐버릴 것입니다."라고 미리야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너에겐 믿음이 있다."라고 성모님은 말씀하셨고, 미리야나는 "예, 저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메주고리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메시지에 응답한다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

나는 때때로 다가올 하느님의 징벌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본다. 나는 징벌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발현목격증인들이 사용한 바로 그 단어이다. 징벌을 의미하는 크로아티아 단어는 또한 "처벌"이나 "응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무자비하게 복수심에 불타거나, 화가 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류가 하느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세상이 그 스스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말씀이 새겨진 글들을 읽는 것이다. 교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죽어간 시기는 없었다. 순교자들은 교회를 이루는 이야기의 중심이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굳이 메주고리예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위층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낙태가 문제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상은 확실히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오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가오는 재앙이 어떤 것이든 완화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이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메주고리예 본당이나 발현목격증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자주 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메주고리에 주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하느님의 섭리로 인해 마리아께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고, 여러분의 어머니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아들아 (자녀들아), 네 어머니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를 분명하게 해주셨다. 복음사가 성 요한은 나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처음 우리에게 오셨다. 이제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경고하기 위해 예수님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사랑, 보호 그리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M**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미래의 재난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 시각 장애자에서 사제로 . . . .

시각 장애자인 라이너 헤르타이스(Rainer Herteis) 신부는 1991년 메주고리예에서 성소를 받은 후  
지난 2006년 5월 6일 독일 Eichstatt 교구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질문 :** 신부님, 언제 시각 장애자가 되셨고, 성소는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라이너 신부: 저는 1975년,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약했으며 유치원에 다닐 때는 이미 망막 질환으로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아주 작은 불빛만 구분할 정도의 시력만 남았기에 의사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제가 치유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5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어느날, 어떤 자매가 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저는 아주 뜨겁고 강한 열기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느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늘 제 육체적인 치유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큰 은총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이 제 안에서 활동하는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소를 느낀 것은 1991년 첫 순례 때였는데, 그 씨앗은 메주고리예 순례 6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997년 성령강림 대축일에 두 번째로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도 저는 시력회복에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시력회복이라는 육체적인 치유는 삶의 전부이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전 9시 독일어 미사에 참여하고 있을 때, 제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교회의 성사를 통해 세상에 주신 거룩한 미사성제의 은혜에 대하여 세상에 외치고 싶은 영적인 느낌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고해소에 앉아 신자들이 살아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소망과 뜨거운 열정에 사로 잡혔습니다.

**질문 :** 그 당시 학교는 졸업하셨습니까?

라이너 신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그 후인 1996년이었습니다. 장애자인 제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3년 동안 음악공부도 했으나 제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메주고리예 순례때 성모님께서 저를 성소로 부르시는 것을 다시 체험하였으며 그 때부터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제 성소는 매년 메주고리예를 방문하면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당연히 메주고리예 성모님께 대한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교구의 주교님께서 저에게 육체적인 장애는 현대 의학과 과학으로 교정될 수 있다고 하시며 그보다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위한 열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교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1999년 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장애를 통해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심을 알면서 내면의 눈을 뜨게 되자, 저를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봉헌하는 지향을 가지게 되었고, 기도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보다 눈 하나를 빼버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은 제가 그토록 원하던 시력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장애를 통해서 영적인 세상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의 시력이 치유되어서 단 한번이라도 세상을 볼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사제가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해야 자신의 장애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라이너 신부: 피정을 할 때 저는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님, 제 인생을 당신의 손에 드리오니,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제 안에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 드리면서 제 인생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봉사자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청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겪고 있는 시각 장애와 십자가의 고통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찾게 되면 다른 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



다.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서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면, 많은 영혼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사제나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교구 주교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라이너 신부: 1984년 교회법에 보면 시각 장애인들도 사제로 서품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서 장애를 겪는 사제 결에는 교육을 받은 평신도가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믹사(Mixa) 주교님께서서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알고 계셨고,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모범에서도 영감을 얻으셨습니다.

**질문 :** 그럼, 어떻게 미사 경본을 읽으십니까?

라이너 신부: 제가 늘 목에 걸고 다니는 필름을 통해서 미사 경본을 읽습니다. 모든 경본은 컴퓨터화해서 소리로 재생시킵니다. 그래서 미사 한 대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준비시간이 제게는 기도 시간이라서 자주 내적으로 감동을 받으며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또 종신 부제님 한 분이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질문 :**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부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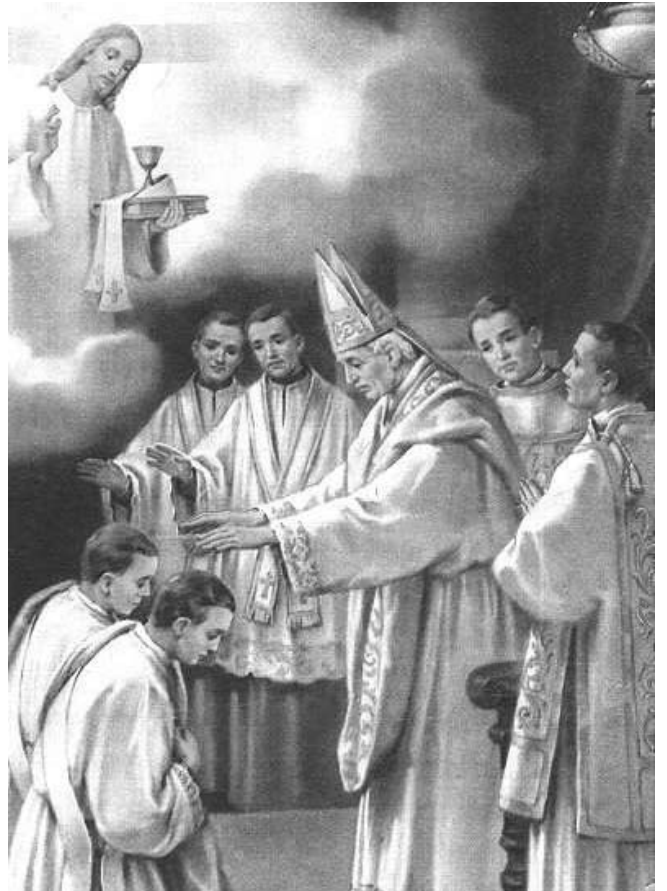
라이너 신부: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특별히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유를 찾기 때문에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곤 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때문에 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늘 강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봉헌합니다. “주님,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이 마음을 봉헌합니다.” 좋은 의미의 봉헌을 하려고 하면 겸손해지고 싶은 의지와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철저한 나약함을 받아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모든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질문 :**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신들이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장애아를 가지고 있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본인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어떻게 내적인 힘을 얻고 계십니까?

라이너 신부: 제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믿음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합니다. 고해성사나 면담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마음으로 듣고자 성령의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들은 사제들을 하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제들은 그런 신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성사들이 그들의 삶에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면서 분명하고 신실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기도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제를 원합니다. 성모님을 알고, 묵주기도를 드리는 사제라면, 자신들이 가야 하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로서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아 가고자 한다면, 십자가와 장애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M**

(이 기사는 2007년 6월 메주고리에서 시각 장애인인 라이너 헤르타이스 신부님과의 인터뷰입니다.)



#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영혼아!

### 18년동안 감옥살이를 하던 죄수의 체험기 (2)

짐 제닝스

이 책은 또 다른 두 권의 책을 추천하였다. 그것은 "참된 신심"과 "그리스도를 닮음" 이었다. 이 책을 어디서 구할까 걱정을 하던 내가 책 봉투를 열자 두 권의 책이 나왔다. 나는 단숨에 이 책을 읽으면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결심이 더 굳어졌다. 다음 번 묵주기도 모임 때, 우연인지 봉사자 한 분이 "그리스도를 닮음"이란 내용도 포함된 "봉헌을 위한 완전한 (33일) 준비" 라는 몽포르드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의 책을 주었다.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 하기에는 너무나 합당치 못한 죄인이었지만, 간절히 청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서 33일 후에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였다. 세상의 죄인들이 다 모인 감옥안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봉헌을 바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모두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받았다. 나는 할 말이 있으면 먼저 침묵하면서 내 입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어떤 여인에게 관심이 끌릴 때는 내 눈을 성모님께 드렸다. 이런 작은 봉헌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또 다른 동료 죄수들에게 웨인 와이블이 발행하는 신문을 복사하여 나누어 주면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 보자고 권했다. 내 권유를 받아 들인 비니라는 죄수가 나와 함께 마당을 거닐

면서 주머니 속의 묵주 알을 굴리며 속삭이듯이 작은 음성으로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나는 신부님께 교도소 안에 메주고리에 평화의 기도회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기도회를 만들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신부님은 내 의견에 회의적이셨다. 동료 죄수 비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 구내에 있는 낡은 교실 하나를 빌려 기도회 방으로 쓰도록 간수에게 허락을 받는데 성공했다. 비니와 나는 그 빈 교실에서 처음으로 묵주기도 15단을 모두 바치고, 기도회 장소를 마련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는 지향으로 성모송 세 번을 더 바쳤다. 두 주일 만에 평화의 기도회는 14명으로 늘어났다. 국제 마약 밀매업자, 살인자, 깡패, 오토바이 갱단, 사기꾼들이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우리는 묵주기도도 바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바쳤다. 내가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먼저 기도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청했다.

우리가 아픈 이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교도소안에 소문이 나자 그들은 자기의 가족, 친구 등을 위한 개인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동료 수감자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 기적적

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다음 순서로 나는 동료수감자들에게 고해성사를 권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자기가 자백하지 않은 살인 행위를 고백하면, 신부님이 자기를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점차 신부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들이 저지른 모든 죄목과 그런 죄를 몇 번 저질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A-4용지 양면 가득히 적어 가지고 고해성사를 보았다. 몇 달 동안 미사에 오지 않던 누군가가 미사에 와서 성체를 받아 모시면, 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양심성찰을 받도록 권했다. 우리는 성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 해 8월,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성모님께서 달을 밟고 계신 책의 표지에 '여인'이라고 쓰여진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책은 1830년에 매일 미사시간에 신자가 불과 몇 명밖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개탄하는 프랑스의 어떤 신부님이 쓰신 것이었다. 성체거양 때 신부님은 또렷한 음성을 들었다. "이 본당을 텅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여야." 신부님은 이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려니 하고 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감사 기도를 바칠 때, 똑 같은 음성을 듣게 된 신부님은 확신을 가지고 본당을 봉헌하자 400명이나 되는 신자가 매일 미사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나는 속으로 '대단하군. 내가 이 교도소를 봉헌하면 어쩌면 모든 수감자가 기도를 시작할지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했다. 나는 신부님께 성모승천 대축일에 교도소를 봉헌하는 기도문을 작성하여 봉헌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늘의 여왕께 바치는 9일 기도를 적어 모든 기도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모님께서 모든 수감자들이 자신을 봉헌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제안하였다. 나는 교도소 내 다섯개 지소의 모든 수감자들과 종업원, 방문객, 배달원, 운전 기사들, 심지어 교도소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봉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을 적어 배포했다. 우리는 8월 15일에 봉헌하였다.



3개월 뒤, 어느 추운 11월의 오후,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의 축복을 주시기를 청하는 습관이 있는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 날은 완전히 맑고 아름다운 푸른 하늘에 구름이 한 조각 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구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교도소 전체를 덮고 있는 듯한 베일처럼 보였다. 갑자기 구름 한 가운데에 완전한 원이 나타났다. 그 원을 통하여 푸른 하늘이 보이더니, 그 가운데에 누군가 부드러운 빛으로 그려 넣은 듯한 완전한 형상의 비둘기가 나타났다. 나는 하늘에서 징표를 찾는 사람이 아니지만 참으로 신비로왔다. 아직도 완전한 원은 빛을 발산하면서 주위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혼자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불렀다. 우리는 마당에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30분 동안 묵주기도를 바쳤다. 묵주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구름은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다음날 다른 동료들도 그 날 아침 하늘에 심장과 꼭 같은 구름 모양 안에 있는 비둘기를 보았다고 했다. 봉헌 11일 후에는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께서 우리 교도소를 방문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고 믿었다.

그 해 12월, 나는 뉴저지 주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지만 아직도 테네시 주의 집행 유예 기간이 남아 있었다. 나는 플로리다 주에서 남은 형량을 모두 마친 후에 조용한 곳을 찾아 가톨릭 신앙생활을 하며 남은 생애를 보내기 원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회개한 살인범인 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미국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는 성모 마리아 대회에서는 내 이야기와 체험담을 듣기 위해 나를 초청했다. 대단히 바쁜 스케줄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느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교도소에서처럼 하루 4-6시간의 기도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었다. 휴이트 신부님은 석방되면, 흐르는 물이 되지 말고 고인 물이 되라고 내게 충고해 주셨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이 거기에 빠져 드는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천할 수가 없었다. 석방 후, 2년간이나 계속된 나의 증언 스케줄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했다.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 초

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을 보고 물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 보는 순간 물에 빠진 성경 속의 베드로와 같았다. 나도 힘없고 실패뿐인 초라한 모습의 나 자신을 돌아 볼 때, 물에 빠져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옛날의 악한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사고를 저지르게 되었다. 마치 지옥 문이 활짝 열리면서 나를 파멸하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은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 후회와 수치감으로 괴로워하다 신경쇠약증에 걸렸다. 그러나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내가 배운 것들을 무효화 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쓰러지면서도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상처를 입고 부서진 사람들에게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과 체험담을 계속해야 했다.

1993년 12월 8일, 신경쇠약으로 남은 집행유예 법을 위반한 나는 나머지 집행유예 형량을 테네시 주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나는 23년간의 길고 긴 감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느님께서 끝없는 자비로 나를 구원하시어 나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알고도 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이 깊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나를 돌려 보내주셨다. 나는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 뿐 아니라 나는 건강이 악화되어 집 밖으로 나가 여행하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매일 매일 내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그분들을 위해 봉헌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만,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많은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께 봉헌하고 있다.

나는 옛날의 동료죄수들이 자유를 만끽하며 가톨릭 신앙을 굳히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다. 또 몇 개의 교도소에서는 아직도 평화의 모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메주고리에게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수감자들이 나의 증언과 체험담을 담은 비디오를 보고 있으며 나를 형제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테네시 주 교도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하신 기적은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끊임 없는 자비로 늘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휴이트 신부님께서 해주신 성인은 쓰러지면서도 계속 일어나는 죄인이라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산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하느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이 주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M**

- 인디애나 주에서 -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내가 주는 메시지대로 살도록 날마다 너희를 초대하고 있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특히 너희를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이끌어 주고자 한다. 어린 자녀들아, 오늘은 내 아들 예수님께 너희를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초대한다. 그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분의 것이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티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도록 초대한다. 너희 자신을 개인적으로, 한 가정으로, 본당으로 봉헌하기 바란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내 손을 통해 하느님께 속할 수 있게 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메시지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너희 영혼의 구원만을 바랄 뿐이다. 사탄은 강하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여 이 어머니의 품에 바싹 붙어 있어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1988년 10월 25일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 -

## 평화의 모후선교회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Tel : (570)722-1657,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발행처: 평화의 모후선교회

발행인/편집인: 남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프란시스코 수도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욱 (선교학 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웹관리자: 윤경만

편집위원: 최레지나,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